

모든 양계농가가 단합하여 양계산물의 생산조절에 참여해야

김 강 식

축산시험장장, 농학박사
농수산부 축산국장 역임



우리 나라의 '82년도 닭고기 소비량은 9만 9천톤, 계란 소비량은 45억 6천 2백만개로서 연간 국민 1인당 닭고기 2.5kg, 계란 116개를 소비하였고, 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닭이 4천 5백만수가 사육되었으며 이와같은 마릿수의 닭을 사육하기 위하여 육추용사료 25만 3천톤, 산란사료 1백 13만 3천톤, 육계사료 58만 3천톤으로 총 1백 96만 9천톤의 배합사료를 소비하여 양계사료가 배합사료 유통량의 53.2%를 차지하여 사료소비율에서 보면 양계업이 축산업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과거 10여년 동안 사육수수면에서나 사양관리기술면에서 크게 발전하여 왔고,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양계농가는 사양관리기술 수준이 낮아 닭의 유전적 생산능력을 제대로 발휘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양계농가에서는 절대 생산성만 높으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닭에게 너무 많은 사료를 먹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양소의 손실을 가져와 우리나라의 양계 생산물의 생산비가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양계농장의 계절별 영양소 요구량을 규명하여 영양소의 손

실을 줄여 양계생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양관리 및 경영기술을 개발해야 하겠고, 축사시설을 방한방서 등 환경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며, 같은 양의 계란이나 닭고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투입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지출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를 절감하여 생산비를 줄여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축산시험장에서는 양계생산물의 경제적인 생산기술 개발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1983년 10월 8일자로 축산시험장의 직제를 개정, 가급과를 신설하여 앞으로는 축산시험장 가급과에서 우리나라 사양관리 여건에 맞는 닭의 사양관리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연구를 확대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계생산물의 생산비절감을 위한 또하나의 방안은 닭의 사양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절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축사구조와 관리기구의 개선으로 1인당 관리수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여건에 알맞는 자동급이기, 급수기, 계분제거장치 등을 새로이 고안하여 농가에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소득과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으로 보아 자동 닭관리기구의 시장이 좁아 그 판매량이 적겠지만, 앞으로 국민소득이

3천~5천달러 수준으로 향상되면 대부분의 양계농가에서 자동 닭 관리기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는 계란이나 닭고기의 생산과다로 인한 가격폭락이라고 본다. 계란이나 닭고기의 생산과다로 인한 가격폭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축협중앙회에서 매분기별로 경기관측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 당초 기대 하였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축협중앙회의 경기관측 결과를 모든 양계농가에서 성실히 활용하여 야만이 계란이나 닭고기의 가격폭락을 방지할 수 있는데, 각 양계농가가 생산조절을 위해 단합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모든 양계농가가 단합된 행동으로 생산조절에 참여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양계생산물의 생산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 모든 양계농가가 생산조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부지방에서 조직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를 전국 모든 지역에 조직하고 이 조직망을 통하여 닭의 사육수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양계 경기관측 결과 생산과잉이 예상될 경우 각 지역생산자 단체별로 감축 비율을 일정하게 배정하고 각 지역 생산자단체에서

는 그 지역 생산자단체에 속하는 양계농가에게 그 지역에 배정된 감축비율 만큼 자진해서 사육수수를 감축시키도록 결의,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생산과잉으로 인한 양계생산물의 가격폭락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정 비율의 사육수수를 감축시키고도 오히려 일정수수를 감축시키지 않았을 때 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별 생산자 단체의 또 하나의 장점은 닭의 사양관리에 필요한 사료, 약품, 사양관리, 기구 등을 생산자 단체에서 공동구입함으로써 각 양계농장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 보다는 더 좋은 질의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는 잇점이 있고 각 양계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이나 고기닭의 판매 창구를 통합하여 각 지역에서 가까운 소비지에 직접 출하하여 중간마진을 생산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대량 소비지에 직매장을 설치하여 계란이나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유통경로를 줄이고, 유통경로를 감축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곧바로 생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 지역 생산자단체에서 유도해 나간다면 생산과잉으로 인한 계란이나 닭고기의 가격폭락을 방지하고 양계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내실있고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매일 15일은 채란분과위원회 및 세미나
- 매월 27일은 육계분과위원회 및 세미나

분과위원은 물론 관심있는 양축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히 전국 각 계우회에서도 참석하시어 양계인의 단결과 화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익일로 순연)